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한국의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한국과 유네스코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발적 기여 예산은 미화 2228만 9650달러입니다. 2018-2019년 기준, 한국은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공여국 상위 10위 이내에 들었습니다.

유네스코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발적 기여 사업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 환경, 문화, 유산 분야 등에서 두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공여주체들은 유네스코와 손을 잡고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곳곳에서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1 1950년 제5차 유네스코 총회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가입 당시)
- 2 오늘날 유네스코 총회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대한민국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04536)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유네스코회관
Tel 02-6958-4100 Fax 02-6958-4250
www.unesco.or.kr

외교부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및 요르단 취약계층 직업 교육

수혜국 요르단
사업기간 2016년 - 현재
예산 미화 400만불

동 사업은 매년 시리아 난민 175명과 요르단 취약계층 청년 75명(총 250명)을 대상으로 토목공학, 측지공학, 그래픽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사무관리 및 경영, 인적자원 관리,接客업, 미용 등의 직업교육을 지원하며, 수혜 학생의 50%가 여성입니다. 취약계층 및 시리아 난민 청년들에게 ‘시장맞춤형’ 직업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바미안 문화센터 건립 사업 3기

수혜국 아프가니스탄
사업기간 2019년 12월 - 2021년 11월(완공 예정)
예산 미화 349만 6272불

바미안 문화센터는 역사적 사료와 민속유물 전시뿐 아니라 각종 회의 개최, 지역주민을 위한 수공예품 기술 전수,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의 고용기술 전수 등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 세계 관광객과 아프가니스탄 국민 및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세계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거점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부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

수혜국 1단계: 보츠와나, DR콩고, 말라위, 나미비아, 잠비아
2단계: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사업기간 1단계: 2011년 - 2016년 / 2단계: 2016년 - 2020년
예산 1단계: 미화 1000만불 / 2단계: 미화 1000만불

동 사업은 수혜국 내 직업기술교육 정책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과 산업체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직업기술교육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학습 내용의 현장 적용력을 높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

수혜국 라오스, 르완다, 몽골,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베트남, 우간다, 우즈베크, 인도네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사업기간 2007년 - 현재
예산 미화 270만불

동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문화창의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 내 민·관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 정책이 현실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문화 정책에 대해 관리·평가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환경부

기후변화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물안보 사업

수혜국 아프리카 10개국, 아시아 10개국
(2020년 현재 케냐 및 가봉에서 사업 추진 중)
사업기간 2017년 11월 - 2027년 10월
케냐: 2019년 1월 - 2021년 6월
가봉: 2020년 4월 - 2022년 3월
예산 미화 313만불

동 사업은 2020년 기준 케냐와 가봉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2019년부터 지하수 관리 컨설팅 및 정책 제언, 공무원 초청연수 등의 사업 활동을 추진, 가봉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후변화 영향 검토, 스마트 물 관리 컨설팅 및 정책 제언 등의 주요 활동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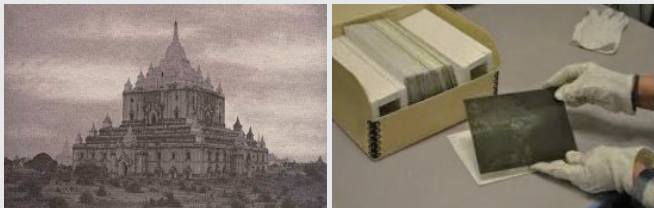
i-WSSM센터 국제교육 활동

국가기록원

미얀마 바간 사진 아카이브 보존 및 디지털화 사업

수혜국 미얀마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예산 미화 511,036불

2016년 8월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진도 6.8)으로 파손된 고대 불교의 중요 문화유산인 미얀마 바간 유적지의 복원을 위해서는 1900~1920년대 유적지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사진기록(유리건판)을 먼저 복원시켜 활용할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동 사업은 해당 기록물의 시급한 복원 및 보존 처리, 그리고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대한민국-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지역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신탁기금

수혜국 북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각국
사업기간 2011년 - 현재
예산 미화 400만불

동 사업은 2000년에 북한 지역 고구려 고분군의 보존을 지원했으며,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연구, 세계유산 역량강화 정기보고, 세계유산 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주민참여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① 국제전문가와 북한전문가의 수산리고분 배수로 설계모습
- ② 수산리 고분 벽화 보존처리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섬·연안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생물권보전지역

수혜국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원국 (2020년 6월 기준 42개국 93개 지역)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예산 미화 50만불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는 스페인 메노르카와 함께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의 공동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를 통해 동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및 현명한 이용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전략을 수립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① 2017년 9월 12일 개최된 2차 신탁기금 MOU 체결식
- ② 2019년 11월 제주도에서 열린 제7차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교육

한국국제협력단

말리 UNESCO 교육을 통한 여성 청소년 역량강화사업

수혜국 말리
사업기간 2016년 - 2021년
예산 미화 515만불

동 사업은 말리 내 여성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성생식보건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말리 국가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촉진하고, 말리의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국제해양과학 10개년 계획 준비단계 지원

수혜국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 회원국
사업기간 2018년 - 2020년
예산 미화 387,539불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하나인 '해양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SDG 14)의 달성을 위해 유네스코-IOC의 모든 회원국이 참가하는 전 지구적 해양탐사·연구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은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를 통해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사업의 일부를 선별하여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유네스코와 한국의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등 조직의 전문분야별 임무와 역량에 따라 회원국들의 긴급한 우선순위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코로나19 발발 초기 단계부터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이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를 통해 지원한 프로젝트와 활동들도 유네스코가 코로나19에 대응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 ✓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 '아프리카 ICT 활용 교육혁신 지원 사업', '말리, 네팔, 탄자니아 내 여성 청소년 역량강화 사업' 등과 같은 한국의 교육 부문 자발적 기여 사업들은 일부 조정을 통해 코로나19가 수혜국의 교육 시스템에 미친 피해에 대응했으며, 특히 여성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 유네스코는 한국의 문화·창의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ResiliArt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온라인 협의를 개최하는 등 문화 분야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협의를 통해 문화 분야 및 창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실천 사례들과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 ✓ 유네스코의 코로나19 대응은 세계유산 분야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예컨대,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자료 및 자원들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였으며, 관련된 특별 온라인 세션과 격주로 'Clinic Hour'라는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제주도의 화산섬 지역 유산 관리자 및 전문가들이 세계 각국의 세계유산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shareOurHeritage 캠페인에 참가했으며, 제주도의 세계유산을 담은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